

天心大靈神 (텐신오미카미)

텐신오미카미란 거룩하고 존귀하며 천지일체를 다스리는 유일한 구원의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펼치시며 신성하고 신비한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우며 신비한 힘을 발휘하시어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하느님께 바치는 이름입니다.

본부성당성전
(왼쪽·영전, 오른쪽·신전)

—안심하고 생활하는 행복을—

“왜 저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까?”

“왜 저 사람은 저리도 성실히 일하고 인품도 나무랄 데 없는데 불행한 일만 생길까?”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天心聖教(텐신세이교)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며 우리들 인간이 “행복한 사람” 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행복한 사람” 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는 텐신세이교가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에 의해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를 읽어 보시고 꼭 한번 텐신세이교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자애롭게 맞아 주시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역시 불안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나 텐신세이교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여러 의문과 불안감이 드실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본교의 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교사와 면담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음 장부터는 하느님과 텐신세이교에 대한 소박한 질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시
나요?”

당신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하느님은 당신에게 있어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곤란한 일이 해결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조상의 꿈을 꾸는 등 체험은 각기 다릅니다.

다만 모든 체험에 있어 공통되는 점은 하느님에 의한 구원은 옛 날이야기처럼 신비롭고 놀라움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결과로서, 시간이 지나도 그 결과의 선행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체험이 과학이나 철학, 지식으로 해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한 일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망이라도 기도해도 되나요?”

사람이 신앙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성취하기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께는 갓난아기처럼 빌라” 고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라도 꾸밈없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에 비추시어 정당한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텐신세이쿄의 교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드리고 당신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텐신세이쿄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 인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 천지일체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텐신오미카미사마” 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약 2 천년 후인 1892 년 (메이지 25 년)에 본교의 개조인 형·헤이키치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후에, 예수를 인류에게 보낸 하느님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계, 조상들이 계시는 영계, 하느님이 계시는 신계, 나아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나요?”

하느님과 인류의 접점이 있어, 텐신세이쿄의 개조 시마다 세이치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 중 “고신지 (御神示 : 하느님의 계시)” 로 남아 있는 내용은 신계, 영계, 현계에 대한 것, 또한 우주의 섭리, 과학의 진보, 인류의 미래, 인간으로서 바른 삶까지 모든 영역에 이릅니다.

이 계시에 더하여 개조의 가르침을 담은 “설유 (御諭し)” 와 “하느님의 말씀 (神の聖旨)” 이 본교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 신도들은 이를 교서로써 신앙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나쁜 운을 가져가시고 좋은 운을 내려 주십니다. 이로써 불운에 의해 일어나고 마는 사고, 천재지변, 싸움, 병, 가난 등에서 벗어나 당신의 운명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지켜 주시므로 커다란 안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이러한 보호는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행복을 하느님께 기도해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조상님의 행복을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하여 영계의 조상님과 현계의 당신이 같은 하느님을 신앙하고, 언제나 서로의 행복을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됩니다.



텐신세이쿄의 기원

하느님과 10 살의 소년

텐신세이쿄의 기원은 1892년(메이지 25년)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에 살고 있던 시마다 헤이키치라는 10살 소년 앞에 하느님이 갑자기 나타나 그로부터 4년의 세월 동안 여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개조 탄생의 예언

1895년 정월. 헤이키치는 이듬해 남동생이 태어난다고 예언하여, 그로부터 13개월 후인 1896년 2월 11일에 예언대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에게 '세이치'라는 이름을 주시고, 헤이키치에게

너와 헤어져야 하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의 사명을 내릴 자를 보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신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늘을 날아 심산 등을 감



하느님께 글을 배움



하느님과 헤이키치가 지냈던 헛간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

40년 후 다시

그로부터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느님께서 당시 도쿄에서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이치 앞에 강림하시어

너희들에게 재화와 보물을 내릴 것이니 세이치가 태어난 2월 11일에는 반드시 성제를 행하라

라고 명하시며, 선물 상장의 계시로 인해 세이치와 그 동료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 주셨습니다.

개교,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기적

세이치는 이를 계기로 신앙의 길에 들어서 1951년(쇼와 26년),

세이치 네 신명을 다해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 내가 늘 수호할 것이니

라는 신명을 받들어 텐신세이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며 현재에도 그 구원은 더욱 현저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인형극 유래' DVD



자택 2층에서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성제를 시작함



산막에서 거한(하느님)을 만남



하느님은 위대한 힘과 깊은 자애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체험

— 신도들로부터 받은 진실한 체험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교통 사고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다

홋카이도 거주 이시하라 다모쓰 (50 대)

외근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던 중, 맞은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운전석은 크게 부서지고 양쪽 발이 운전대에 끼어 혼자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제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의식도 뚜렷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달려온 분이 우연히도 휴가중인 소방대원이어서 적절히 현장을 판단하고 구급 처치를 위한 대응과 구급대원에게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구조되어 병원에 호송되었습니다.

현장에도 사원이 몇 명 있었는데 차체의 참상을 보고 '이 사고는 운 좋으면 중태, 최악이면 사망 사고다' 라고 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날은 발표 우레탄 (건축물의 단열재) 스프레이를 내용물이 가득 찬 상태로 싣고 사고를 당해, 충돌 시 스프레이가 차내에서 파열되어 목에서부터

등까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우레탄에 둘러싸여 있던 덕분에 유리 파편에 의한 부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은 이전에 아버지가 제가 사고를 당한 곳과 거의 같은 지점에서 국도 옆을 달리던 철도 열차에 치어 제 사고 당시의 연령과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공양 장부에 아버지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기입하고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렸습니다.

주식 대폭락으로 파산 상태에서 기적의 재기

도쿄도 거주 스스키 마사아키 (50 대)

◎ 20 대에 40 억이나 되는 빚을 지다

저는 니혼바시 가부토초에서 주식거래 일을 하고 있다가 1990년 (헤이세이 2년), 당시 27살의 나이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개업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걸프전에 의한 주식 대폭락에 휩쓸려 제 회사는 파산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 바로 회사를 접고 조용히 지냈다면 괜찮았겠지만, 쓸데없는 허영과 고집을 부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며 회사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40억엔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액의 빚이 있음에도 당시의 저는 금전감각이 마비되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가부토초에서 빌리고 있던 주차장 요금을 1년 이상이나 미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장의 오너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 분이 바로 텐신세이쿄의 신도였습니다.

밀린 주차장 요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분은 "스스키씨, 하느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기도 해서 "네, 있습니다만" 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로도 상황은 나빠지지만 해서, 식비도 줄여가며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 때 즈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부성당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입회한 그날 일이 들어오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때는 “우리의 하느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느님이므로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 아무 걱정 말고 일본 제일의 주식가가 되세요.” 라는 말과 “틀림없이 도와 주실 것이므로 한가지 약속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하느님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느님의 귀한 부적 (おふだ: 집에 두는 큰 부적) 을 받아 회사에 가니 바로 그날 갑자기 큰 일이 들어와 착착 진행되어, 그 날 중에 7500 만엔이나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회 때의 저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는데, 믿기 어려운 기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조화였습니다.

이후로 저와 아내는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하느님과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이 체험과 함께 하느님의 이야기를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입회 3 개월 만에 30 명 가까이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추심 폭력단이 지쳐 떨어지다

그 후에도 하느님의 위대한 힘에 의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빛에 관한 문제로 폭력단의 사람이 추심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어딘가로 끌려가거나 폭력을 당해 목숨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여 성당의 선생님께 지도를 부탁하니 “당신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력단의 사람이 어떤 말로 협박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지쳐서 먼저 답을 제시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을 전도했나요? 전도는 하느님에 대한 최대의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당신을 반드시 하느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딘가로 끌려 간다면 축사가

담긴 교본을 몸에 지니고 가서 상대에게 전도하세요.” 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지고, 상대가 어떤 짓을 해도 가르침 대로 가만히 있으니 상대는 초조해 하다가 이내 지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까지 안 좋아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대는 혼자서 회사로 와서 “너처럼 버티는 놈은 처음 봤다. 그러니 이 빛은 봐 주겠다.” 며 믿기 어렵게도 빛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예사로운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도움이라고 보는 것 이외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더욱더 축복받아, 입회 당시 40 억엔이나 되던 빛을 무려 약 10 년 만에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위대한 하느님의 수호 덕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였던 손녀가 입회 3 일후 등교

오사카부 거주 고타니 에이코 (80 대)

제 손녀딸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하고 충격을 받아 심적 상태가 불안정해져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약 2 년간 계속되어 남동생에게 상담을 하니 남동생이 “이번에 우리 집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모임이 있으니 거기서 함께 기도해 보자” 라며 모임에 초대받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남동생은 “하느님, 누나의 손녀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2~3 일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 년간 가족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던 손녀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회전부터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에 놀라 바로 입회를 하고 난 2~3 일후 또다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혼자 학교에 갈래”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지난 2 년간의 상태로 보아 이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뇌종양이 코로 튀어나와 완치

오사카부 거주 다니구치 사토루 (80 대)

회사 건강진단으로 왼쪽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으니, 의사로부터 “이전부터 있던 폐암이 전이되어 눈 안쪽 시신경 주변까지 끌어들이는 형태로 종양이 생겼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니 실명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다른 종교에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본 조카가 “제가 믿는 하느님께 귀의하면 분명 나을 거예요!” 라고 열심히 얘기해 주어 아내와 함께 오사카 교회에서 입회하였습니다.

저는 재검사를 받기 전에 본부성당에서 참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칸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세면대에서 코로 길이 10 센티 정도의 고름 같은 것이 몇 번인가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재입원하기 이틀 전에도 오사카 교회에서 참배하던 중 또 코에서 걸쭉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후 재입원하여 검사 수술을 받았을 때, 분명 종양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단순한 염증이라며 외과의사도 놀라며 검연쩍은 듯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놀랍게도 폐암까지 사라져, 그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인 채로 입회하여 크게 운이 트이다

도쿄도 거주 나카지마 이쿠코 (60 대)

저는 기독교도인 채로 입회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 여러 문제에 고민하면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라는 막연한 기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내에 큰 문제가 생기자 '지금의 신앙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고 결국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을 멀리할 수 없었던 저는 친구인 나카가와 히데코 씨가 "나도 하느님을 신앙하고 있어." 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연락을 해서 성당에 데려가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본교에 입회하니,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조르는 것처럼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라는 지도를 받고 마음이 단숨에 가벼워졌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던 할머니, 오빠, 그리고 생후 5 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뻐 마음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마치 허물을 벗은 듯 우리 가정의 여러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신 모두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던 딸이 간호사로 재취직했고, 미국에 부임 중이던 남편은 인터넷 화상 전화로 '모임' 을 개최하던 중에 그토록 바라던 일본으로의 귀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부모와의 오랜 갈등이 하루아침에 풀리게 되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입회전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공양으로 아들의 자살 충동이 사라지다

나가사키현 거주 스즈키 미스미 (60 대)

◎ "죽게 내버려 둬."라고 부탁하는 아들

제 아들은 희망했던 대학교에 의기양양하게 입학하여 2 학년 때까지는 순조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유년을 거듭하여, 입학한 지 8 년후 중퇴할 때에는 이미 26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가족과 대화하는 일도 적었고, 그 상태로 금세 2 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컴퓨터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자격도 취득하고 그 전문학교의 교사로 취직한 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상처투성이로 돌아와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날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고, 잠시만 눈을 떴으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지켜보는 생활이 9 년간 이어지던 어느 날, 친구인 도요후쿠씨의 "하느님이 도와 주실 텐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하니 도요후쿠씨는 바로 달려와 주어,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가사키 임시교회 (현 나가사키 성당) 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입회 절차를 밟고, 하느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동안, 그제야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공양 장부를 제출하고 조상들의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발산 수행 (심신의 건강을 위해 하는 수행) 을, 저는 아침 기도와 오코모리 (お籠り: 매월 11 일 심야 2 시 (12 일 새벽 2 시) 기도) 를 계속하며 "부디 도와 주소서." 라고 하느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뵙다

입회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축사를 올리고 있던 중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당 같은 건물 안의 정면에 하느님이 서 계셨는데, 오른쪽 어깨를 조금 들고 영혼들을 감싸 안 듯 양손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키가 크고 두꺼운 삼베옷을 입으셨으며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길어, 저는 보는 순간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기모노를 입은 모습으로 좌우로 나뉘어 줄지어 앉아있어, 남편과 제 조상들임에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니 "조상들이 신앙의 길에 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공양을 열심히 올려야겠다고 다짐하고, 마음에 걸리는 조상들의 공양을 시작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아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먼저 아침 인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운전과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등 놀라운 일 뿐이어서 가족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아들의 취직도 결정되었고,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열심히 신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 19년간은 하루하루가 길고 공포심과의 싸움이었는데, 구원받은 지금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말기 피부암이 완치되고 35년 주택대출도 보험금으로 완제!

군마현 거주 오가타 유지 (40대)

◎내 집 완성 직후의 암 선고

입회 1년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지을 토지를 찾고 있었을 때, 몸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배에 있던 큰 점에 종기가 생겨 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단순한 점" 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맘에 드는 토지를 찾아 순조롭게 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그 때 왼쪽 배의 점이 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점이 이렇게 커질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이번에는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점을 전부 절개하고 재검사를 받은 결과, 병명은 '멜라노마' 라는 피부암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이되기 쉽고 진행이 빨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악성 암입니다. 즉시 다른 병원에서 이차소견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게다가 암은 표피로부터 6밀리 깊이까지 침식하고 있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바로 성당에서 참배하고 지도를 받으니 선생님께서는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도해 주시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 성공과 보험금 배당

수술은 피부이식이 필요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몇 일 후, 이번에는 왼쪽 겨드랑이의 림프에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지만, 이 전이는 유전자 레벨의 아주 작은 수준에 그쳐,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수술후의 항암제 치료에 의한 부작용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주택대출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

왔습니다. 건물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 들기 전부터 암이었다' 는 의심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35 년의 주택대출을 암보험금으로 완제

하지만 몇 일 후, 놀랍게도 보험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의 진단이 '단순한 점' 이었던 것이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으로, 35 년간 지불해야 하는 건물의 주택대출을 1 년간 지불한 것으로 완제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수호를 받아 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의사의 "이제부터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1 회의 검사와 3 개월에 한번씩 문진만 하러 오세요." 라는 말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일도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느님의 힘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실업하고 처음으로 성당에 참배 후 큰 행운을 얻다

도쿄도 거주 마루야마 노리모토 (40 대)

저는 내부 설비 업자입니다만, 근무하던 회사가 불경기의 영향으로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것은 아내뿐이었고, 그때까지 저는 손 모아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어쩔 도리 없이 퇴직을 당하고 독립할 가망도 없어 궁지에 몰린 저는 처음으로 성당에 참배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였지만, 하느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니 내부 설비업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와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꼭 도와주었으면 한다" 는 말을 듣고, 그 후로 순조롭게 일이 들어와 처음으로 하느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즉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에 리더로 발탁되어 고수입을 올려 곤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감사의 참배를 드린 후에는 후원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형 담배 제조 회사의 전국의 새 점포를 위한 내부 설비를 의뢰 받고, 그에 더해 대형 의류 회사가 뉴욕에 새로 점포를 내면서 회사 사상 가장 큰 점포의 내부 설비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일거리가 날아든 것입니다.

이것이 업계에서 소문이 나 연이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사무소도 차리고 대형 건설회사와의 사업 제휴라는 행운을 얻어 안정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궁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행복의 길을 주신 위대한 하느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신앙에 눈떠 구원받은 남편의 생명

도쿄도 거주 구니타테 레이코 (60 대)

방콕에 단신으로 체재하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긴급 입원했다.” 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리 신실한 신자 는 아니었는데 그 통화에서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담관 결석이 원인인 급성 췌장염과 급성 간염으로, 췌장의 염 증은 왼쪽 폐에까지 번져 흉수가 차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이 정도로 간 수치가 높는데 황달이 들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는 말을 듣고 하느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며, 철저한 감염증 조치를 받아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주치의에게 가니 “췌장 상태가 꽤 심각하고 췌액이 새어 낭이 생겼 습니다. 이런 상태로 다행히도 죽지 않고 귀국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 니다. 소개받은 대학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니 “췌장의 췌관이 중간에 끊어 져서 췌액이 새고 있습니다. 낭증이 세균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 니 고열이 나면 긴급 입원하십시오.” 라는 말과, 그에 더해 “낭증이 없어질 때까지 반년에서 1년은 걸립니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금 위대한 하느님께 신실히 기도하도록 얘기하여 남편은 성당에 참배하고 선생님을 통해 하느님께 병이 완쾌되기를 일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러자 참배하며 지내는 동안 병세가 호전되어 2 개월 후에는 낭도 작아지 고 감염증도 없이 입원하지 않고 단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느님의 힘과 자애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하고 말기암이 치료되다

홋카이도 거주 안도 게이코 (60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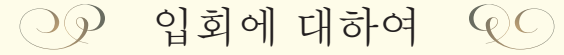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운 병원에 가니, 의사로 부터 “담관암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개월에서 반년 밖 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 저는 갑작스러운 사망선고에 놀랄 뿐 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었으므로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도 갑작스 러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암은 간의 위아래·림프·문 정맥·혈관에도 전이되어 “수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4 기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 사촌인 와타나베 미호코씨로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듣고, 지푸 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회하였습니다.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성당의 선생 님께는 전화로 지도를 받았는데, “병원을 바꾸세요.” 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우수한 의사의 집도로 인해 이전 병원에서 불 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 침대 위에서 축 사를 올리고 하느님께 일심으로 수호를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병세에서는 ‘수술을 해도 빠르면 1개월만에 재발한다’ 는 말을 들었지만, 재발도 전이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른 암이 갑상선에 서 발견되었지만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어 갑상선 좌엽과 우 엽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에는 전이도 재발도 없이 건 강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숙명일지라도 큰 재난을 작은 재난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위 대한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립니다.

본교의 신앙에는



신비한 구원의 “체험” 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헤이키치 소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1892년 (메이지 25년) 부터 오늘 날까지 하느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체험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병, 일, 가정, 그 외,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 하느님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매일을 보내기 위한 “가르침” 이 있습니다

개조 시마다 세이치 선생님 [1896년 (메이지 29년)-1985년 (쇼와 60년)]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세이치 네 신명을 다해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 내가 늘 수호할 것이니』 라는 사명을 받들어 텐신세이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가에서 종교가로 전신하셨습니다. 1951년 (쇼와 26년) 에 본교가 개교한 이래, 89세로 서거하실 때까지 인류 구원의 길을 완수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하사 받은 계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우주의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과 훈화가 본교 교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행복을 받기 위한 “개인지도” 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행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상담에 오신 분들에게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 적절한 조언을 하고,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본교에 입회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경제적 문제·가정의 문제 등, 어떠한 것이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소개인 또는 전국의 성당·교회에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전국 예배시설의 장소·연락처는 마지막 장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관일은 통상 1일, 11일, 21일을 제외한 목요일입니다)

Q. 입회하지 않아도 지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입회자 분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소개인과 함께 오시거나 또는 소개인의 이름을 접수처에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인이 없는 분은 본부성당, 각지 성당 또는 교회에 상담 바랍니다.

Q. 입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개인과 함께 본부성당, 각지 성당 또는 교회에 참배 후 입회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당년도 연회비와 집에 두는 부적의 대금 11,000엔을 납부한 후 집에 두는 부적을 받으면 입회가 완료됩니다. 또 입회시에 교서와 신앙의 길잡이, 축사 책자 등을 드립니다.

Q. 연간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연회비 5천엔 (일반회원)
- 집에 두는 부적 5천엔 오마모리 천엔 교통오마모리 5천엔
- 합동 공양제 공양료 6천엔 (1년분)
- 일반 공양 2천엔 (인원수가 아닌 1회 공양료입니다)
- 지도기도로 수의 (금액은 임의)

Q. 다른 종교에 있어도 입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믿는 대상은 달라도, 그 신앙심이 머지않아 텐신오미카미님께 이어져 이제까지의 신앙도 살아 이어질 것입니다.

